

목조다세대주택 재생프로젝트

_ 하기소(HAGISO, 萩荘)

Regeneration Project for Multifamily Wooden House

_ "HAGISO"

글. 송준환_ Song, Jun-hwan

아마구치 국립대학 공학부 조교수

2013년 4월에 도쿄 JR아마노테(山手)선 닛포리(日暮里)역, 치요다(千代田)선 센다기(千駄木)역에서 각각 약10분 거리에 위치한 야나카(谷中) 지역의 한 중심부에 카페와 갤러리가 함께 계획된 자그마한 문화복합시설「하기소(HAGISO)」가 탄생하였다. 일본 관광지로도 잘 알려진 우에노(上野)에서도 가까운 이 곳, 야나카 지역은 도쿄에 거의 유일하게 옛마을 풍경이 많이 남겨져 있는 곳으로 서울강북의 서촌지역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지역 또한 각종 개발압력에 의해 현대식 건물들로 변화될 위기가 있었으나 지역 활동가 및 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노력 속에서 옛 복고풍경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고, 최근에는 젊은 아티스트들의 공방과 셀렉트 숍이 들어서 독특한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하기소(HAGISO)」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지닌 야나카 지역의 한 모퉁이에 위치한다. 실제로 이 건물은 지은 지 약 60년이 된 목조 다세대주택으로서, 하기(萩)는 우리나라 말로 싸리를 의미하는데, 예전부터 이 지역에 싸리나무가 많아 붙여진 이름이다. 주변에는 대학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어, 저렴한 하숙비 등을 이유로 예전부터 대학생들이 많이 살던 지역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 건물 또한 그러한 저렴한 하숙집 중에 하나였으나, 살고 있던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시작한 이벤트가 계기가 되어 지역에 새로운 교류의 장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림 1) 아나카지역 거리풍경

■ 젊은 건축사의 새로운 발상을 통한 옛 건물의 재생

원래, 소림지(宗林寺) 절부지 내에 위치한 하기소는 1955년에 지은 목조 2층 다세대 임대 주택으로, 절주지가 관리해 왔으며, 2000년 정도까지는 사람들이 입주하여 살았으나, 그 이후에는 계속 빈집으로 공실상태가 지속되었고, 때로는 노숙자들이 살던 곳이기도 하였다. 이곳을 도쿄예술대학의 건축학과 학생들이 발견하여 2004년부터 살기 시작하였다. 현재의 하기소를 디자인한 하기소의 대표이자 건축사인 미야자키 미즈요시(宮崎晁吉, 33세) 씨는 현재, 자신의 사무소를 하기소의 2층에 두고 있는데, 실제로 2006년부터 이곳에 살기 시작하였다.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여, 붕괴위험 및 노후화에 따라 절주지로부터 건물을 해체하고 지상주차장으로 전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건물에 대한 애착을 가졌던 미야자키씨는 적어도 건물에 대한 “장례식”은 치루자라는 생각으로 주민과 아티스트 20여명을 모아, 바닥을 부시고 상하 2층 높이를 활용한 큰 새장을 만들거나, 복도에 나무를 심거나, 벽 한쪽에 작은 나사들을 박는 등, 건물해체를 전제로 한 아트전을 기획하였다.

2012년 2월, 3주간의「하기엔나레 2012」를 통해 무려 1,500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예상 밖의 큰 호응을 얻게 된다. 비록 오래된 건물이지만, 이렇게 큰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데도 불



그림 2) 하기소 건물외부 풍경

구하고 철거해버리는 것이 아깝다고 판단한 미야자키씨는 개수하여 새롭게 재활용하는 계획을 절주지에게 제안을 하였고, 2013년 4월에 리모델링한 「하기소(HAGISO)」가 오픈하게 된다.

■ 옛 기억을 남기는 공간디자인

60년이 넘는 목조건물을 구조벽과 금속철물로 보강을 실시하였는데, 사용 가능한 부재는 가능한 한 남겨두되, 철거되는 부재는 재사용하여 옛 건물로서의 기억을 살리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였다. 복고풍의 음식점 등을 가보면, 인기를 끌기 위해 의도적으로 복고적 느낌을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하기소는 부재 하나하나 그 자체가 실제 시간의 경과가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림 3) 하기소 평면도(출처. 하기소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림 4) 하기소 1층 카페와 갤러리 모습

1층에는 카페와 갤러리 이외에, 약 14㎡의 다목적 스페이스를 구비하고 있고, 2층에는 세입자로 미용실과 아티스트를 위한 아틀리에를 갖추고 있다. 1층의 카페 반대편에는 흰색의 콘크리트 벽면이 위치하는데, 이 갤러리 공간은 아티스트의 전시 및 카페를 객석으로 하는 음악회와 영화상영이 이루어진다. 약 20㎡로 크지 않지만, 2층을 뚫어, 층고 7m의 확장된 공간감을 만들어 내고 있다. 갤러리라고 하면 약간의 비일상적 공간으로 쉽게 접하기 힘든 느낌이 있지만 이를 카페라는 일상적 공간과 접목시킴으로써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실제로 이곳은 입지적 특성상 야나카라는 전통적 마을의 중심부에 위치해있고, 바로 길 건너편에 매우 작지만 조그마한 공원(岡倉天心公園)이 T자 형태로 위치하고 있어, 거점적 역할을 하기에 적합한 장소였고, 이를 지역 교류의 장으로서 변화시킴으로써 자생적인 지역재생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은 약 10년간 그 건물에 살면서 느낀 것을 바탕으로 지역특성에 근거한 독자적 방식으로 풀어낸 옛 건축물의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낸 본연의 “재생” 사례로서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으며, 건물을 설계하고 짓고 나면 건축사의 역할은 끝나는 것이 아닌, 직접 건물 전체를 빌려 공간을 디자인하고 운영에 관여하는 것 또한, 지역재생을 위한 건축사의 새로운 역할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1. 하기소 홈페이지 : <http://hagiso.jp/>
2. 日経MJ 신문(2013년 7월 24일자, http://hagiso.jp/reported/130724_nikkei/)
3. 朝日新聞 DIGITAL
(2015년 2월4일자, http://www.asahi.com/and_w/life/SDI2015020363201.html)
4. 하기소 제공자료